

##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10월 15일(월) 배포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김현주 선임전문원 Tel.02-3299-1263

# 한-WB 공동 KSP 지식공유포럼 KSP를 통한 개발정책 논의의 지평 확대

- 기 간: 2012년 10월 15(월) ~ 16(화)
- 장 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주 최: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기획재정부 · 세계은행

## - 세션 1. 개발정책의 합의와 새로운 도전 요약 -

발표. 주요 개발정책이슈에 관한 의견 차이

존 윌리엄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본 발표에서는 개발정책에 관한 논의 중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온 내용보다는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5가지 정책이슈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개발정책의 합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 정부와 시장: 최근 세계경제위기 이후 정책기조가 시장주의에서 정부개입주의로 변화하는 경향.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옹호하나, 어떤 형태의 혼합경제가 효과적인지에 관한 의견차이가 있음. 중국의 예를 들자면, 국영기업을 통하여 경제위기에서 더 빨리 성장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2) 산업정책: 산업정책은 “특정한 활동을 권장하거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즉, 정부는 기업이 특정한 상품 생산을 장려하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을 수립, 추진함.

-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외부성(externalities)을 내부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줌.

- Rodrik은 경쟁의 다각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Lin은 경제성장의 낮은 단계에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함.

- Williamson은 산업정책이 법제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함.

3) 저환율과 성장/개발: 많은 사람들은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통한 성장과 경제개발이 가능하다고 믿음. 실제로 어떤 국가들은 수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대신 고환율정책을 채택.

- 반면, 저자는 저환율의 단점으로 경상수지 흑자의 성장이 투자를 낮출 것이라고 지목함.

4) “중진국의 함정”: 많은 국가들은 일정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하지만, 고소득국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움. 실제로, 몇몇 국가만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었음.

5) 민주주의 체제가 개발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개발을 위해서는 독재주의 체제가 필요한지, 개발이 진행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1980년대에는 인도의 낮은 성장률과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의 높은 성장률을 비추어볼 때 민주주의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 하지만, 동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미루어볼 때, 민주주의와 성장은 병립할 수 있음.
- 민주주의와 성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논의를 고려하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 1) 많은 경제학자들이 혼합경제를 옹호하고 있기에 정부와 시장에 관한 논의는 특별한 해답 없이 계속될 것임.
- 2) 관료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대신,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산업정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됨. 하지만, 규모의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이 요구됨.
- 3) 저환율정책이 성장을 돕는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연구도 있음.
- 4) “중진국의 함정”과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어떻게 중진국들이 그 함정을 극복할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음.
- 5) 민주주의 혹은 독재주의가 개발을 돕는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함.

## 토론 1. 산자이 프라단 세계은행 연구소 부총재

- 시민들은 선거 뿐만 아니라 개발정책 예산 편성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개발에서 민주주의를 작동할 수 있는 분야임. 개방형 파트너십에 한국 등 5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콩고의 경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휴대폰을 통해 시민 의견의 묻고이를 반영하는 등 미시적 민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시장과 국가, 산업정책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언어, 컨센서스를 도모해야 되며 시장과 국가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존해야함.
- 전통적 개발 패러다임은 북에서 남으로 이데올로기, 지식, 자원 등의 일방적 전달이었다면 현재는 개도국이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처방전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국가로부터 실증적인 교훈을 얻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향함.

## 토론 2.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한국경제 발전 과정의 몇가지 특징을 언급함.
  - 첫째, 한국의 경우 세정개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으며,
  - 둘째, 대외개방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해외기술과 노하우가 FDI를 통해 도입).
  - 셋째, 산업정책의 경우,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추진, 중요소생산성, 중복투자, 과대투자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

- 넷째, 한국은 잘 구축된 제도를 통해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었음.
- 다섯째, 바람직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십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정책 이행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었고, 기술관료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 여섯째, 동반성장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빈곤층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 금융정책이 중요.